

서울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네트워크 연구

김찬미* · 김경민**

A Study on Location Distribution and Social Network of Social Enterprise in Seoul

Chan Mi Kim* · Kyung Min Kim**

요약 : 단순한 재정 지원의 한계가 대두되면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좀 더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방법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2년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은 이러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런 필요에 부합하기 위해 정부는 “서울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관악 사회적경제 조성단” 등의 조직을 통해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네트워크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간조직을 지정하여 사회적기업 지방 기관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 그리고 타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더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 특성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부문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지역 내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 네트워크가 어떤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기대 효과를 내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중간지원조직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래프 이론을 이용해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분석 결과를 클러스터 모델과 사회적 혁신 클러스터와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 및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교류와 자원 순환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 특성은 지속가능한 생태계로 보기에는 어려운 한계점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사회적기업, 사회적 네트워크, 산업 정책

ABSTRACT : With strong government support, the number of social enterprises increased sharply over the past few years in Korea. The social enterprise policy has shifted from financial support to creating an environment friendly to social enterprises. As a part of such policy, the Korean government has encouraged networks among social enterprises as well as with other organizations on belief that social network is important part of business operation and sustainability. Due to short history of social enterprise in Korea, not only do we lack research on social enterprise themselves but there are very few study on the business environment in relation with social network. This research aims to study social network of social enterprise as a means to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the environment they are in and be able to give policy-makers a sense of direction concerning their strategy on the social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연구원(Researcher,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Professor,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교신저자(E-mail: kkim2@snu.ac.kr Tel: 02-880-9517)

enterprise sector. This paper studies the network of social enterprises in Gwanak, Seoul, with particular focus on social network among social enterprises. Social network mapping and network analysis based on graph theory was used for the research. The result of analysis was compared and contrasted with the cluster theories, industrial cluster theory and social innovation cluster theory, in order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twork.

Key Words : social economy, social enterprise, social network, industry policy

I. 서론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된 배경은 국가마다 다르다. 미국 사회적기업 부문은 정부 지원 축소에 따라 비영리 기관이 민간 영역으로 그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서 성장하게 되었다. 반면 유럽 국가는 국가의 복지 책임을 민간 영역으로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0년대에 대량 실직 사태로 인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 부담이 생겼으며 이는 일자리 사업단 등 여러 형태의 공공 일자리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하지만 성과 부진으로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사회적기업은 실직 문제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채택되었다.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적기업 부문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지난 몇 년간 사회적기업은 엄청난 양적 성장을 해 왔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사회적기업을 살펴보면 2007년 55개소에서 2013년 말 950개소가 넘었다. 이렇게 사회적기업의 수는 늘었지만 과연 이들이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박선화(2010)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회적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으

며 평균 영업손실 또한 증가해 왔다. 따라서 3년간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이 종료된 이후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방식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사회적기업이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 육성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며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여러 경영 및 전문적 지원을 줄 수 있는 지원 조직들이 생겨났다. 환경조성을 통한 사회적기업 지원은 2013년~2018년을 위한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핵심적인 과제로 언급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핵심은 자원과 정보 교류가 활발한 네트워크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이 어떤 기관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관계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및 생태계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와 실태 연구로 나뉜다. 전자에서는 생태계를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네트워크 체계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성공적인 운영에 필요한 자본 인프라와 사회·경제·문화적 지원을 공급받는다 고 본다. 이인재·황주희(2013)는 이런 개념

연구를 바탕으로 경영 지원, 자본 지원 시스템 구축, 거버넌스 보완 등의 제언을 하였다. 생태계 지원과 관련해서 최혁라 외(2012)는 사회적기업이 기업과 공공기관 등과 같은 기관과 연계를 원하고 있으며 지역 연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김지훈(2013)은 민간투자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생태계 활성화 방안의 초점을 맞춘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회적기업 실태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기업 성장 환경이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초기 지원을 담당해 온 공공 영역과의 연계 외에 외부자원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재·김봉한(2013)에 의하면 경영, 홍보 및 마케팅 등의 영역에서 공공기관과의 연계는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타 부문, 특히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자원인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홍철(2012)에 의하면 공공기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중간조직의 필요성과 사회적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조하였다. 김윤미(2013)의 연구 결과에서도 자본 인프라나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타 기관과의 연계 부분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공공영역의 재정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였다.

위와 같이 사회적기업 생태계 및 네트워크에 대한 일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사회적기업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과거 연구와 제언에 따라 다양한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채택한 이후 생태계 변화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형태를 띠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해당 분야에 대한 테

이터 추적과 연구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지역 내 사회적기업들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업 클러스터와 사회적 혁신 클러스터와 비교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의 현 위치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관악구에 소재한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2013년 기준으로 서울시에는 인증 사회적기업의 22.5%가 위치해 있을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인증하는 사회적기업 외에도 서울시와 지자체가 각각 인증하는 서울형 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사회적기업이 위치해 있다. 서울연구원 「인포그래픽스」 제53호(2013.9)에 의하면 이들 수를 모두 합하면 433개소에 달한다. 관악구에는 2013년 7월 기준 23개 사회적기업이 위치해 있으며 이는 사회적기업의 수가 가장 많은 마포구(47개소)와 가장 적은 중랑구(5개소)와 비교해 볼 때 수적으로 중상위권에 속한다. 관악구사회적경제생태계조성단과 청년 사회적기업 창업보육센터 등 사회적기업 지원 단체가 위치해 있으며 김준기·정복교(2007)에 의하면 예전부터 시민단체 움직임이 활발한 곳으로 사회자본이 풍부한 지역이다. 기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기업과 정부 정책 프로그램에 영향을 많이 받은 사회적기업이 고루 있어 서로 다른 경로로 시작한 사회적기업 간 차이를 살피기에 용이하다고 생각하여 해당 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위에 언급된 세 가지 유형의 사회적기업과 더불어 2013년 기준으로 육성 과정에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2013년

7월 사회적기업진흥원(KoSEA)과 서울시가 제공한 사회적기업 목록을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2013년 5월~12월 기간 동안 인터뷰 및 설문 요청에 응한 관악구 사회적기업 15개소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및 설문을 진행하였고 서울에 위치한 중간지원조직 및 관련 기관 8곳을 인터뷰하였다. 총 23개 인터뷰를 바탕으로 현재 사회적기업이 맺고 있는 주요 관계망을 확인하였고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 분석을 시행하였다.

1. 그래프 모델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 분석을 위하여 네트워크 모델의 하나인 그래프 모델을 사용하였다. 그래프 모델에서 네트워크는 노드(node)와 노드 사이에 있는 엣지(edge)로 이루어져 있다. 노드와 엣지의 구성 및 형태에 따라 대상 네트워크가 정의된다. 엣지는 방향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관계 특성상 방향성이 없는 엣지를 사용한다. 국가 간의 수출·수입이 방향성 있는 엣지의 한 예이다. 연결도(degree)란 한 노드와 연결된 다른 노드의 수를 의미한다.

네트워크 분석에 있어서 밀도 분석, 결집 계수, 경로거리 분석은 3대 분석으로 불릴 정도로 네트워크 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네트워크 밀도(density: Δ)는 특정 상황에 있을 수 있는 최대 엣지의 수 대비 실제 존재하는 엣지의 수로 최소 0에서 최대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Delta = \frac{\text{실제 엣지의 수}}{\text{최대 엣지의 수}} \quad (1)$$

$$= \frac{L}{g(g-1)/2} = \frac{2L}{g(g-1)}$$

여기서 L 은 실제 존재하는 엣지의 수이고 g 는 네트워크 내 전체 노드의 수이다. $\frac{g(g-1)}{2}$ 는 최대 가능한 엣지의 수이다. 네트워크 밀도는 실제 엣지와 최대 가능한 엣지의 수를 비교하여 노드들 간에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결집 계수(clustering coefficient)는 특정 노드와 이웃한 노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확률로 노드들이 얼마나 클러스터 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계수이다. 밀도가 전체 엣지의 수 대비 실제 엣지의 수, 즉 총 가능양에서 현재 관계 보유 정도를 단순 비교한다면 결집 계수는 “함께 아는 이웃”을 찾아 준다.

결집 계수를 측정하는 두 가지 방법은 전체 결집 계수(global clustering coefficient)와 부분 결집 계수(local clustering coefficient)이다. 전체 결집 계수는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뭉치는 성질을 보여주는 반면 부분 결집 계수는 각각의 노드들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결집 계수를 구할 때 흔히 사용되는 평균 결집 계수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집단화 정도를 파악하였다. 평균 결집 계수($\bar{C}$)는 부분 결집 계수(C_i)들의 평균값을 계산한 것이다. 부분 결집 계수와 평균 결집 계수는 다음 식을 통해 구할 수 있다.

$$C_i = \frac{l_i}{t_i} = \frac{l_i}{d_i(d_i-1)/2} = \frac{2l_i}{d_i(d_i-1)} \quad (2)$$

$$\bar{C} = \frac{1}{n} \sum_{i=1}^n C_i \quad (3)$$

부분 결집 계수는 그 노드와 이웃한 노드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단형’ 엣지, 삼각형의 수 중 실제로 존재하는 삼각형의 수이다. 여기서 삼각형은 세 노드가 있을 경우 세 노드가 서로 모두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 노드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닌 겹치는 관계의 수를 보는 것이다. l_i 는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삼각형의 수이고 t_i 는 네트워크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삼각형의 총합이다. d_i 는 이웃 노드의 수이며 $\frac{d_i(d_i-1)}{2}$ 를 통해 총 삼각형 수를 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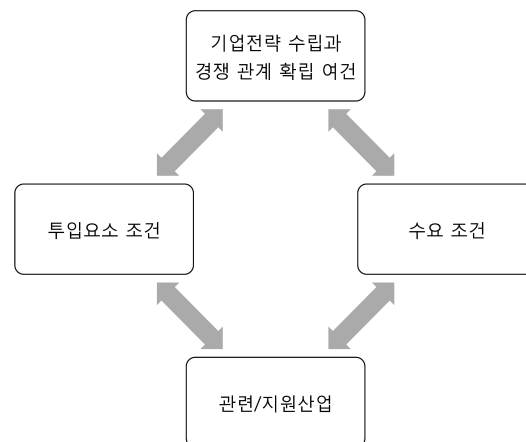
밀도와 마찬가지로 최소 0에서 최대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경로거리는 한 노드가 다른 노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최단 거리를 측정한 것으로 평균 경로거리가 짧을수록 네트워크 내 상호 접근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클러스터 분석

본 연구에서는 관악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 인터뷰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가 클러스터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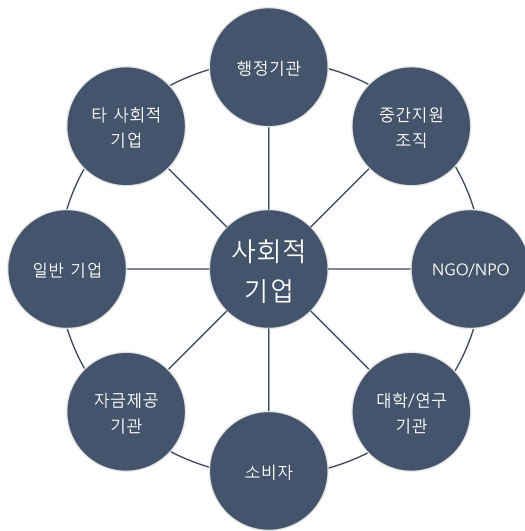
Porter(2000)의 기업 클러스터 이론에 의하면 기업들이 특정 지역에 밀집하는 이유는 암묵지(tacit knowledge)의 교환이 지역적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공간적 마찰 없이 세계 어디로나 교환이 가능한 공식지(codified knowledge)와는 달리 암묵지는 지적으로 제한된다.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기업은 지식 교류를 통해 타 분산되어 있는 기업이 갖지 못하는 우위를 갖게 된다. 이 클러스터링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그 거리가 유발하는 네트워크이다.



〈그림 1〉 입지적 경쟁우위의 원천(Porter, 2000)

클러스터는 수평적(horizontal) 측면과 수직적(vertical)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수평적 측면은 유사 기업들의 경쟁으로 인한 생산 제품 및 서비스 질 상승을 들 수 있다. 동일 기업들이 집적하므로 기업들이 자사와 타사의 생산 활동을 효과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결국, 이 때문에 기업들은 차별화와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또 다른 측면은 수직적, 보완적인 관계로 상호 연관된 기업들(공급자, 서비스, 고객)간의 연계로 구성된다. 클러스터에 속한 회사는 특화된 서비스와 공급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키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공급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클러스터에 진입하는 공급자는 규모의 경제를 누리고, 수요 기업은 생산품의 출하에 낮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지역 안에 밀집되어 있는 기업들은 그 안에서 협력과 경쟁을 하며 경쟁우위를 갖게 된다.

일반 기업의 네트워크를 대표하는 클러스터와 더불어 사회 혁신 활동을 상징하는 사회적 혁신 클러스터 모델 또한 비교 모델로 사용하였다. 미국의 사회적 혁신 클러스터(SI 클러스터)는 산업 혁신 클러스터와 마찬가지로 실리콘밸리에서부터



〈그림 2〉 사회적 혁신 클러스터 주체(Tanimoto, 2007)

시작되었다. 실리콘밸리와 SI 클러스터 모두 자발적인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 중심으로 발달했다. SI 클러스터는 자발적 관계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식과 인적 자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핵심적인 네트워크로는 투자자, 기업, 비영리 조직이 참여하는 사회적 벤처 네트워크(Social Venture Network: SVN)가 있으며 SVN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파생네트워크가 있다. 여기에는 ‘사회적 책임 사업’(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BSR), ‘투자자들의 모임’(The Investors’ Impact), Net Impact 등이 있으며 이들은 투자와 프로젝트 개발 등 다양한 사회적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활발한 자선과 기부 문화를 갖고 있으며 이런 전통적 자선행위가 새로운 조직화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하였다. 벤처 혁명을 주도해왔던 실리콘밸리 대학들이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만들고 ‘사회적 혁신’ 강의를 개설할 뿐 아니라 사회적 벤처 창업을 지원하

는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인력풀과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SI 클러스터는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 독특한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속가능한 모델들이 창출되고 유지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다. 우수한 인력과 자선 문화, 리더십, 그리고 자본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면서 사회적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I 클러스터 모형을 참고하여 국내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특성을 기술하고자 한다.

Ⅲ. 결과 및 고찰

1.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들과의 인터뷰 결과 사회적기업들이 지자체나 비영리 기관과 상대적으로 강한 관계를 갖고 있는 반면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원 조직들은 사회적기업이 정부, 특히 지자체와 강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NGO나 시민단체와의 관계는 발생 경로에 따라 많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모기관이거나 기존에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는 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조직 대부분이 사회적기업들이 지역 사회와 연계성이 약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의 의견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특성이 확인되었다. 많은 사회적기업이 지자체 및 중간지원을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대상

〈표 1〉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정도에 대한 기관별 평가(○: 강함, △: 보통, ×: 약함)

기관명	정부	NGO/시민단체	지역 사회
세스넷		○	×
씨즈	△		×
관악사회적생태계조성단	○	○	△
희망제작소	○		×
임팩트 스퀘어	○		×
성북구 사회적경제과	○		
성북구 사회적기업허브센터	○		

으로 보았다.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이 지자체 및 중간지원조직, 비영리 기관, 그리고 타 사회적기업을 주요 교류 기관으로 언급하였다. 일반 기업이나 소비자가 주 교류 대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개소에 불과했으며 지역 커뮤니티와 강한 관계를 가진 경우도 4곳에 불과했다. 사업 활동 및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기업의 교류 대부분이 공공 부문과 비영리 기관 및 시민 단체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적 측면에서 활동은 활발하지 않지만 사회적기업 간 교류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가 제한적이며 일부 공공부문 외에는 교류가 적다고 밝힌 선행 연구들과 일치한다.

2.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

15개소 설문을 기반으로 관악구에 위치한 인증 사회적기업과 창업 보육을 받고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 27개소의 사회 네트워크를 재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을 받지 못한 12개소의 관계는 설문에 응한 사회적기업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서로에 대한 인지도와 교류 수준으로 분류하였으

〈표 2〉 네트워크 분류

교류 없음 (모름)	교류 없음 (알고 있음)
약한 교류	강한 교류

며 상호 인식과 교류는 쌍방의 것으로 가정해 본 네트워크는 방향성이 없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위 분류에 따라 네트워크는 ‘알지 못하며 따라서 교류하지 못하는 사회적기업’, ‘알지만 교류가 없는 사회적기업’, ‘가끔 접촉하는 가벼운 교류가 있는 사회적기업’, ‘함께 사업 기회를 고려할 정도로 교류가 잦은 사회적기업’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설문 결과 관악구 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은 사실상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사회적기업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사회적기업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관악구 안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수가 30 미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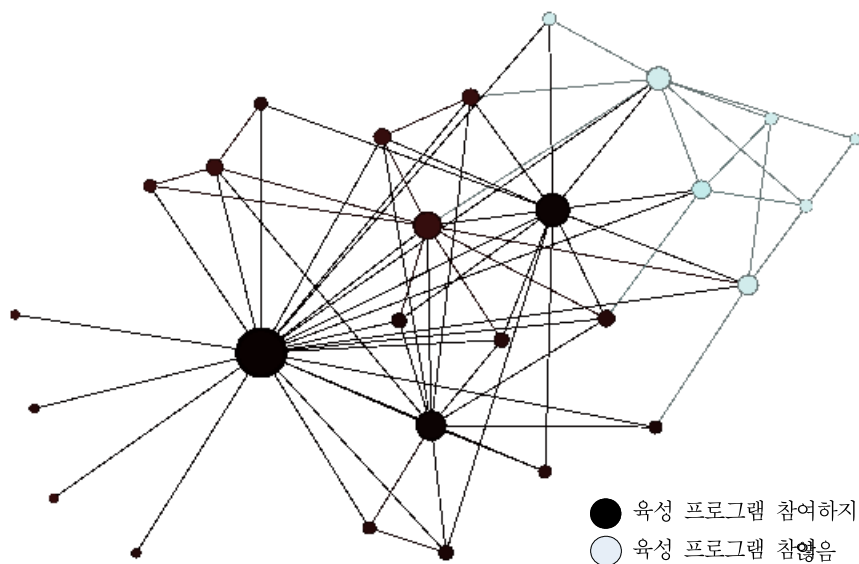
그 수 자체가 적고, 사회적기업을 위한 네트워크 모임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존재해 서로에 대해 알 기회가 많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사회적기업 교류를 분석한 결과 평균 연결도는 6.370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제시된 사회적기업 27곳 가운데 한 사회적기업이 평균적으로 교류하는 사회적기업의 수가 6.37개소라는 의미이다. 이는 교류의 강도를 구분하지 않은 결과치이며 관악구 사회적기업이 타 사회적기업과의 교류가 적지 않음을 보여 준다. 네트워크 밀도는 0.245로 나타나 최대 가능한 관계 수의 25%가량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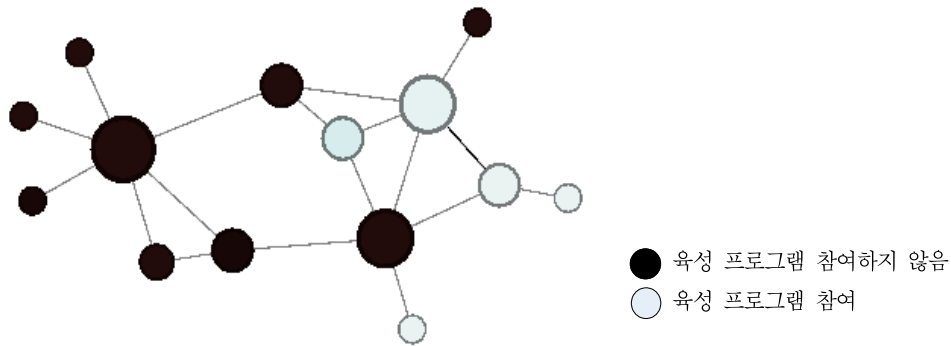
결집 계수는 0.791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0.245인 밀집도와는 크게 대비되는 수치이다. 즉, 모든 관계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아도 함께 아는 대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기업이 서로 교류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 경로거리는 1.849로 나타나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관계망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높은 결집 계수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그림 3〉과 〈그림 4〉에서는 교류 강도 별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볼 수 있다. 노드의 크기는 연결된 다른 노드의 수와 비례한다. 두 다이어그램 모두에서 연결된 노드 수가 두드러지게 많은 노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당 네트워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해 준다. 실제로 관악구에는 공식적인 사회적기업 네트워크가 존재하며 매달 있는 모임에서 사회적기업들은 정보 교환 및 사교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축이 되는 사회적기업들은 네트워크 모임을 이끄는 모임 대표일 확률이 높다. 위 다이어그램에서 나타난 핵심 사회적기업들은 모임 대표 및 임원을 하였거나 현재 하고 있다.



〈그림 3〉 관악구 사회적기업의 “약한” 교류 네트워크



〈그림 4〉 관악구 사회적기업의 “강한” 교류 네트워크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사항은, 사회적기업 육성 프로그램 참여 여부가 네트워크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정부 지원 정책 변화에 따라 비영리 기관이나 시민 단체에서 주로 전환하던 초기 사회적기업과 달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하는 사회적기업의 수가 늘고 있다.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유사 사회적기업끼리 교류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 경로 및 시기 차이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주로 지역 커뮤니티나 비영리 기관에 뿌리를 갖는 초기 단계의 사회적기업은 아무래도 지역을 기반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육성 프로그램 도입 시기(2010~2011년) 이전에 많이 세워졌다. 육성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기존 사회적기업보다 지역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육성 프로그램 의존도가 좀 더 높다. 무엇보다 육성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창업 팀들은 1년간 중간지원조직이 제공하는 같은 공간에서 활동을 하게 되어 창업할 시기에는 상당한 친분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같은 공간에서 같은 조직의

컨설팅을 받으며 설립 과정을 겪기에 자체적으로 강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며 육성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가 별도로 존재한다.

이렇게 다소 다른 배경을 갖고 있지만 함께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또 관악구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모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어 협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네트워크 인프라는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3. 클러스터 이론 비교

기업 클러스터는 앞서 언급한 대로 유사 기업 간의 정보 교환 및 경쟁이 특징인 수평적 관계와 상호 보완적 가치 사슬을 이루는 수직적 관계가 함께 공존해 기업으로서의 우위를 점하게 된다. 그 성격이나 규모, 발생 배경의 차이를 생각해 볼 때 사회적기업 네트워크가 일반 기업 클러스터와 유사한 성향을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이론적 모델인 클러스터 이론과 비교함으로써 사회적기업 네트워크가 사회적기업 운영 측면의 지속가능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

는지 재고할 수 있다.

수평적인 관계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은 일반 기업과는 달리 서로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업계 정보나 운영 측면에서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지역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는 초점이 공통 관심사인 공공 시장이나 공공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정보 공유에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다. 정부와의 협상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업종별 네트워크가 별개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활성화 정도는 업종별로 편차가 크다. 활성화되어 있는 유사 업종 사회적 네트워크 다수가 궁극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시장이나 정책적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 전역에 있는] 건설사회적기업협의회와 관악구사회적기업네트워크... 이렇게 가장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대부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사회적기업과 활발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관악구 사회적기업 A 인터뷰 중, 2013년

“[네트워크는] 제반 정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목표다. 물론 현실적인 목표는 민관 협력을 위해서이다. 관에 의지가 있는 만큼 진행이 되는 것 같다... 관악사회적기업네트워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의 내용도 관악구가 뭘 할 것인가 정도에 국한되어 있다. 업종과 관련한 네트워크가 따로 있다. 청소 관련 업체들끼리의 네트워크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많다. 기술을 공유하며, 공동 대응하기도 하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입찰에 참가하기도 한다.”

관악구 사회적기업 B 인터뷰 중, 2013년

사회적기업의 수평적 네트워크는 실제 시장에서의 운영이나 생존에 필요한 사업 정보 교류보다

는 정부의 지원이나 공공 수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 네트워크가 이런 성향을 보이는 이유는 수평적 경쟁 및 정보 교류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부문에 종사하다 보니 공공 부문 및 정부 정책 외에 기타 사업 정보는 서로에게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시장에서의 자생력 측면에서 수평적 협력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수직적인 측면에서 사회적기업들은 업종이 다양하므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고 지원기관도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협력이 활발히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친분 정도나 네트워크를 보면 협업을 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그럴 의사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협력하는 사례도 있다.

“[다른 관악구 사회적기업과] 같이 공모사업을 진행했다... [우리가 개업할 때] 다른 사회적기업에서 가구를 다 짜 주었다. 저렴하게 해 주신 것 같다.”

관악구 사회적기업 C 인터뷰 중, 2013년

사회적기업 C는 함께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타 사회적기업과 교류가 잦았으며 관악구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대부분의 지역 사회적기업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성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타 사회적기업과도 협업을 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사회적기업가 모임에 참여하거나 협력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매출을 올려야하기 때문에 모임 등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가끔 관악구 모임에 가고 [같은] 업계 쪽과는 연결을 하는데 이걸 갖고 활발한 관계를 맺고

〈표 3〉 일반 기업 클러스터와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비교

네트워크 유형	일반 기업 클러스터	관악구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수평적 관계	유사 기업 간 경쟁 업계 정보 공유 및 교육 효과	유사 업종이 적어 업종 관련 시장 정보 보 다는 공공 시장 정보 및 관련 정책 정보 공유에 더 집중되어 있음
수직적 관계	밀집되어 있는 유사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수요로 공급 기업이 발생 가치 사슬이 형성되고 생산 효율이 극대화됨	사회적기업 간 상호협력 가능 부분을 찾 는 과정 절대 규모(scale)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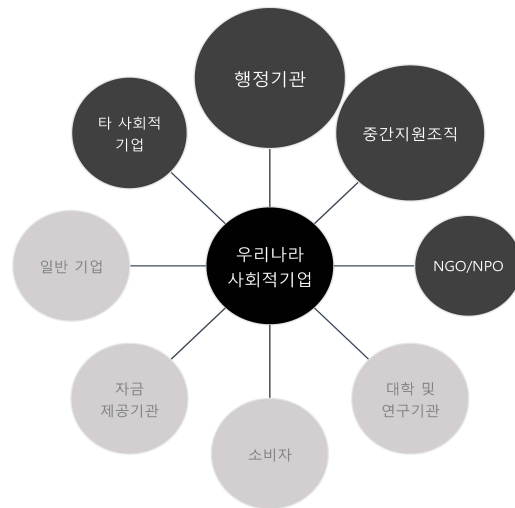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은 있지만 아직 성사되려면 기다려 봐야하기 때
문에 활발한 관계라고 말하기는 아직 어렵다.”

관악구 사회적기업 D 인터뷰 중, 2013년

“우리는 공연하는 단체인데 다른 사회적기업들
은... [종사 분야가] 너무나 다르다. 개인적으로 ○ 사
회적기업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예전에 함께 행
사를 추진했지만 잘 진행되지 않았다.”

관악구 사회적기업 E 인터뷰 중, 2013년

위 인터뷰에서처럼 타 사회적기업과의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
질적으로 협력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이는 타 사회적기업과의 관계가 의미있는 기업 활
동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으
로 보인다. 기업의 수직적인 네트워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관련 업종의 규모가 안정적인 수요
를 발생시킬 만큼 충분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사
회적기업의 경우 그러한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
하다. 사회적기업 D는 다른 사회적기업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만 업무 특성의 차이로 기업 활동에
관계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
으로는 교류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
다. 사회적기업 E도 타 사회적기업에게 호감이 있
고 협력 의사가 있지만 실제로 협력 사업을 진행



〈그림 5〉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조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지역 내
사회적기업 업종이 다양해 해당 수요가 각각 다르
고 또 존재하는 수요의 규모도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미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혁신 클러스터 모델과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구조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사회
적기업 네트워크는 SI 클러스터 모델과 상당히 다
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SI 클러스터는 강한 지역 특성을 배경으로 하는
만큼 지역 주체들과 강한 연계를 하지만 우리나라
의 경우 지역사회와 연계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
로 보인다.

지역사회, 자금제공자, 그리고 대학 및 연구 조직과의 관계가 약한 반면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의 위탁 기관인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가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공공부문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가 사회적기업 네트워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자금제공과 경영지원 등 사회적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원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비영리기관과의 연계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일부 사회적기업이 비영리기관들에서 자립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관계들은 열린 네트워크라기보다는 자 사업 지원 형태로 모 단체와 자 단체에 국한되는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기업과의 관계도 스폰서로서의 특성이 강하다. 현대자동차가 지원하는 'H-온드림'은 2012년부터 매년 사회적기업들을 선정해서 지원·육성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적기업과 일반 기업을 이어 주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지만 비영리기관과 마찬가지로 파편화되어 있고 관계의 효과가 과급되기보다는 현재는 관계 주체 내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인다.

사회적기업 생태계에 대해 평가를 하기에는 관련 정책이 시행된지 충분한 시간이 흐르지 않았고 또 현재 네트워크 특성은 정부 주도적 사회적기업 육성 배경 상 불가피한 것이지만 이러한 구조가 지속된다면 사회적기업이 혁신적인 사회 움직임을 주도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사회적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은 일반 소비자, 자금제공자, 유능한 인력이 사회적기업 활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원해 줄 때에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어떻게 지역과 대학, 민간 부분의 참여를 유도할지 고민해야 한다.

IV. 결론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 분석 및 기존 클러스터 모델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실태의 한 면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타 기관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그래프 이론을 통해 면밀히 살펴 보았으며 단순히 결과를 기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를 기업 클러스터 이론과 사회적 혁신 클러스터 모델과 비교하여 봄으로써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특성을 파악하려 하였다.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기업의 교류 대상이 공공 기관 및 비영리 부문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초기 사회적기업은 공공의 재정 지원과 비영리 기관 및 일자리 사업단 등의 조직적 지원을 축으로 움직여 왔으며 현재는 정부 위탁 중간지원기관과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와의 교류가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계 조성 요구에 따라 사회적 경제 주체 간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도 형성되어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은 상당 수준 이루어져 있다. 그 이유로는 사회적기업 부문 규모가 작다는 점과 이들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자발적 움직임을 들 수 있다. 관악구 내 사회적기업은 20여 개소로 그 수가 많지 않으며 오랫동안 지역 풀뿌리 운동에 기반을 두고 활동해 온 사회적기업들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육성 프로그램 등이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성 프로그램 참여 업체의 경우 중간지원조직으로부터 함께 경영지원을 받는 타 사회적기업과 접촉할 기회가 많으며 육성

기관을 통해 사회적기업 경영자 간 친분이 형성된다. 이 외에도 생태계 조성 사업과 지역 네트워크 조직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이 서로를 인지하고 교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 클러스터 모델과 비교하여 현재 사회적기업 네트워크는 잠재력이 있지만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 기업간의 경쟁 및 정보 교환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은 업종이 다양해서 기업으로서의 정보 교환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업의 지식과 노하우가 타 기업에게 의미 있는 정보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 네트워크는 사회적기업의 공통분모인 공공 시장 혹은 관련 정책 정보를 교환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업 측면에서는 제한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협력 의사가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사회적기업 성장 환경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그 수요가 적고 업종 간 격차로 인해 실제로 협력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미국의 사회적 혁신 클러스터와는 매우 다른 네트워크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공공 부문과의 네트워크가 압도적으로 강하다. 타 사회적기업과의 네트워크는 형성 과정 중에 있으며 지역사회, 대학 기관, 투자 기관과의 관계는 미미하여 사회적 혁신 모델의 구조를 갖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이 해외 사회적기업 네트워크와 다른 형태의 네트워크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자발적인 기부·자선 문화를 기반으로 생성된 네트워크와 정부 정책이 선도하는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환경은 다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모방이 아니라 기존에 주위

진 환경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부문은 정부 주도하에 5여 년 사이 1,000개가 넘는 수로 증가하였고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도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자연 발생적 네트워크와 달리 인위적인 측면이 있어 아직 효과적인 협력 접점을 찾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네트워크의 방향성이 일반 시장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공공 부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향후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부문 규모가 성장하고 네트워크가 공공부문과 사회적기업을 넘어 확장되어 좀 더 효과적인 사업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생태계는 한층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사회적경제라는 개념 아래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일반 기업과의 연계도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경제로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확장시켜 가는 정책 방향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측면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현 정책의 방향성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선화, 2010, “사회적기업 3주년 성과분석”, 고용노동부 권용덕·김덕주, 2011, “경남 사회적 기업의 운영 및 생태계 분석”, 『사회적기업연구』, 4: 107~136, 사회적기업연구원
- 김도균·정선기, 2014,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과 지역의 사회자본 확장”, 『사회과학연구』, 25: 281~306,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윤미, 2013, “사회적기업 생태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준기·정복교, 2007, “한국의 사회조직간의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지역아동센터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行政論叢, 45: 75~105, 서울대학교 한국행정 연구소
- 김지훈, 2013, “기업인수목적주식회사(SPAC)를 이용한 사회적기업의 생태계 구축 방안”, 사회적기업연구원
- 니시아마 야스오·니시아마 야에코, 2009, 「영국의 거버넌스형 마을 만들기 : 사회적 기업에 의한 도시 재생」, 기문당.
- 박지선·전은주, 2012, “EU 사회적기업들의 지역네트워킹에 관한 연구”, 「EU연구」, 95~132, 한국외국어 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EU연구소
- 서용석, 2011 “사회적 혁신 클러스터의 형성 과정”, 「한국비영리연구」, 10: 37~74, 한국비영리학회
- 서울연구원, 2013.9, 「인포그래픽스」, 제53호(<http://www.si.re.kr/node/47038>)
- 신홍철, 2012, “지역사회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부천시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재·김봉환, 2013, “사회적기업 자원연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 227~235, 한국콘텐츠학회
- 이인재·황주희, 2013, “Revitalization of the Korean Social Enterprise Ecosystem and its Policy Implications”,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 137~161, 서울행정학회
- 장현주, 2013, “조직생태학적 관점을 통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탐색”, 「한국공공관리학보」, 165~190, 한국공공관리학회
- 최혁라·김선명·김기현, 2012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자원연계 활성화를 위한 사례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308~317, 한국콘텐츠학회
- Gordon, Ian R. and McCann, Philip, 2000, “Industrial Clusters: Complexes, Agglomeration and/or Social Networks?”, *Urban Studies*, 37(3): 513~32.
- Kerlin, Janelle A, 2006, “Social enterpris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Understanding and learning from the differences,” *Voluntas: International Journal of Voluntary and Nonprofit Organizations*, 17(3): 246~262.
- Porter, Michael E, 2000, “Locations, Clusters, and Company Strategy”, *The Oxford Handbook of Economic Geography*, 253~274.
- Scott, John, 1991, *Social Network Analysis: A Handbook*, Newbury Park.
- Tanimoto, Kanji, 2007, “Social Innovation Cluster in Action: A Case Study of the San Francisco Bay Area”, *Hitotsubashi Journal of Commerce and Management*, 41(1): 1~17.

원 고 접 수 일 : 2014년 7월 31일
1차심사완료일 : 2014년 8월 22일
최종원고채택일 : 2014년 9월 4일